
第7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4月11日(火)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3. 京畿女子商業高等學校關係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4.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
 6.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關한請願調查小委員會結果報告
 7. 世宗文化會館地下駐車場에關한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8.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o 報告事項 ... 2面

1.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3面
2.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5面
3. 京畿女子商業高等學校關係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 12面
4.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

長 提出) ... 29面

5.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1面

6.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鄭一龍 議員 發議) ... 40面

7.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關한請願調查小委員會結果報告 ... 40面

8. 世宗文化會館地下駐車場에關한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 43面

9.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業務報告 ... 46面

(10時 13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76回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報告事項

○委員長 李喆鎬;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案擔當官室 關係公務員 나와주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擔當官室 林性洛; 議案擔當官室 林性洛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年 3月 9日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과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同年 3月 10日 議長으로부터 우리委員會에 各各 回附되었습니다.

1995年 3月 25日 및 同年 3月 30日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 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이 同年 3月 28日과 3月 31日에 議長으로부터 各各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1995年 3月 27日 서울特別市 江西區議會 議員 一同이 提出한 社會教育施設인 江西區 綜合福祉館內 성지중·고등학교의 財政困難으로 학업포기 위기에 있으므로 支援을 要請하는 建議案이 同年 3月 27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1995年 3月 31日 서울特別市 恩平區議會 議長이 提出한 中繼有線放送 事業者가 中繼有線加入 施設費 및 施設使用料가 서울特別市가 承認한 有線放送利用約款을 違背하여 過多徵收함에 따른 區民被害 防止를 위한 철저한 指導 監督과 不當利得金이 還拂될 수 있도록 하는 建議書가 同年 4月 4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15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諒解해 주신다면 提案說明에 앞서서 지난 3月 1日字로 人事異動에 의해서 서울西部教育廳 教育長으로 있다가 初等教育局長으로 轉任된 池容根 局長을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初等教育局長 池容根)

○中等敎會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는 京畿道 南楊州市 等 33個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關한法律 第2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서울學生敎育院 野外敎育場인 대성의 집과 천마의 집의 주소를 변경하고, 기타 일부 未備된 事項을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로는 대성의 집의 位置欄 中 南楊州郡 和道面을 南楊州市 和道邑으로 하고 같은 欄에 京畿道 加平郡 外西面 大成里 548 番地를 追加하며, 천마의 집의 位置欄 中 南楊州郡 湍金市를 南楊州市로 改正하고, 기타 일부 不합리한 規定을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參考事項을 말씀드리면, 根據法令은 京畿道 南楊州市 等 33個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關한法律 第2條第1項및第2項을 參考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 金長虎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 關한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柳根 委員; 行政區域에 대한 統廢合에 따른 調整이기 때문에 별다른 質疑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質疑 答辯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 관한 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 관한 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2.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21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2項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制定事由는 서울教育財政의 計劃적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教育監의 諮問機構로서 서울教育財政審議委員會를 設置 運營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 所屬下에 서울教育財政審議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規定하고,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하여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副教育監,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하도록 하며, 教育廳의 各 室·局長은 當然職 委員으로 하고, 기타 5名은 教育 또는 財政分野의 專門家中에서 教育監이 委囑하도록 規定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委員會는 教育財政計劃樹立, 財政運營方向,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樹立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며,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在籍委員 과반수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과반수의 贊成으로 議決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기타 委員會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參考事項을 報告드리면, 地方財政法 第16條의第2號 各 地方自治團體에는 地方財政會計審議委員會를 두도록 規定되어 있다는 것을 報告를 드립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

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蘇中天 委員입니다.

지금 이 條例案에 보면 制定 理由가 서울教育財政의 計劃的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1991年 12月 30日에 改正이 되어서 公布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條例案을 制定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理由하고, 審議委員會가 審議를 하고 어떤 豫算을 管理함에 있어서 豫算編成에도 反映이 되는 것인지, 그 議決이.

또 두 번째는 豫算 運用上에는 법적 근거만이 豫算編成을 하고 執行할 수 있는데 그 審議委員會에서도 확실한 役割이 무엇인지, 編成과 執行에도 어떤 諮問役割에서 教育監한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라고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 與否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一問一答式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 質問을 받고 할까요?

○金寅東 委員; 一問一答은 너무 무성의하고요. 質問받고 하시죠.

○委員長 李喆鎬; 네, 그렇게 하세요.

○金寅東 委員;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의 制定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教育財政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改善을 누차 要求했던 바가 있었고 한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同僚 우리 蘇中天 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된 審議事項이 財政計劃 樹立하고 運營方向하고 財源調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投資事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事項을 樹立하는데 지금 이 條例案이 보면 전문 몇 條입니까? 12條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미비한 것은 여기에 委員會를 構成함에 있어서 委囑委員은 어떻습니까? 教育委員들의 當然 參與制度같은 것은 장치가 안 되는 것인지, 물론 財政 分野의 專門家 中에서 教育監이 委囑한다 했는데, 물론 審議過程에서 委員들이 審議를 하겠지만 최초에 그런 計劃을 樹立하고 할 때부터도 委囑委員 中에는 教育委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여기서 좀 그 래요. 이 條例를 봐서 지금 서울市 教育廳의 財政은 依存體制的 豫算으로 運營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市와의 關係는 어떻게 設定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具體적으로 조금은 條例에 構成上 그런 것이 明文化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條文에 따라서 各市·道에 이런 條例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內容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內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道가 제일 처음 91년에 이렇게 制定이 된 이후에 條例 設置할 수 있게 해 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市가 91년이면 현재 늦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各市·道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質問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答辯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 먼저 蘇中天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事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根據規定이 91年 12월에 改正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 答辯올리겠습니다.

本 條例를 規定하고자 하는 關係法規 中에 地方財政法 第6條에는 軍政 以後에 教育自治制가 중단되었던 時期에 적용되었던 管理機關 즉, 責任機關 名稱이 改正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울市の 경우는 서울市 教育長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지되었을 때 狀態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改正을 안 했었는데 그 關係規定이 昨年度입니다. 12月 22日字로 정식으로 教育監으로 명칭이 變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理由 중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教育部 方針이 그 法이 改正되기 전까지는 내부 통제수단인 즉, 豫算會計法이나 豫算會計法施行令에 規定된 豫算執行審議委員會를 우선 運營을 해라하는 指示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審議委員會가 構成이 되면 豫算編成 過程에서도 參與하느냐, 그리고 역할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豫算編成 前에 저희들은 이분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編成作業에 參考資料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決定權은 없습니다만 豫算編成 過程에 參與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審議委員들의 主要役割은 아까 金寅東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 教育財政 計劃樹立 全般에 관한 事項과 財政運用 方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財源調達은 어떠한 側面에서 할 것이냐, 또는 投資는 어떠한 方向으로 計劃을 樹立해서 執行할 것이냐, 또는 教育監의 重點事業은 무엇이나 등등의 內容을 協의를 하게 되겠다는 점을 報告를 드립니다.

다음 金寅東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委員 5名은 教育委員도 參與를 할 수 있느냐, 그러한 與否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審議委員會는 저희는 教育委員님들은 參席을 안 하려고 하는 計劃에 있습니다. 그 理由를 說明드리면, 教育委員님께서 저희가 豫算編成하는 過程에서 豫算表決에 들어가기 전에, 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各 分科委員會別로, 또는 전체를 對象으로 해서 저희가 事前 懇談會 形式으로 해서 모든 광범위한 分野에 意見を 청취를 해서 收斂을 하고 거기에서 調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審議委員會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除外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教育財政은 모든 것이 서울市를 비롯한 國庫에 대한 의존체제하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서울市와의 關係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自立도가 委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또는 教育委員님들과 懇談會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市 豫算關聯部署와는 수시로 여기에 대한 저희가 協의를 하고, 또는 저희가 애로도 서

로 相議를 드리고 저쪽의 問題도 파악을 하고 해서 事前調律을 마친 후에 豫算編成 作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審議委員會하고는 關聯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 關係規定 즉, 地方財政法 16條의2가 制定된 지가 오래인데 이제 하는 事由와, 各 市·道의 條例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內容을 물으셨습니다.

지연된 事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各 市·道 教育廳 즉, 15個 市·道 教育廳에서는 昨年 年末에 大田市 教育廳이 처음 이 條例를 制定했습니다.

그 事由는 전체 15個 市·道 教育廳이 저희와 같은 立場에서 이것을 推進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昨年 年末에 今年度 本 豫算을 審議하는 過程에서 大田市議會에서 이러한 法이 있는데 너희는 왜 이런 組織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이 계셔서 그때 비로소 教育部와의 協의를 거쳐서 처음 大田市만을 組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個 道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지금 推進 中에 있다는 점을 報告를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 教育監이 提出한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뒤에 실음)

3. 京畿女子商業高等學校關係報道事項에 대한業務報告

(10時 35分)

○委員長 李喆鎬; 第3項 京畿女子商業高等學校關係報道事項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

.....
(報告)

京畿女子商業高等學校關係報道事項에 대한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히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一龍 委員, 質問해 주세요.

○鄭一龍 委員; 鄭一龍 委員입니다.

오늘날 私學의 運營이 財政적으로 여러 가지 問題點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또 運營上에도 다소 問題點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非理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돌출되었을 때 市 教育委員會에서는

사전에 고발 전에 철저한 監査를 해서 그 監査結果를 가지고 措置를 해야 하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檢察에서 손을 대고 있고, 여기에서 손을 대고 있고 그렇게 되면 眞意를 把握하는데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內容 中에서 다른 것은 雜賦金 성격이라든가 이런 金額은 다소 問題가 적다고 봅니다만 소위 公金流用이라든가, 여기서 이러한 支出이 變則支出은 분명히 橫領이 되고, 回收가 되어야 할 성격인데 거기에 대한 內容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金寅東 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지금 同僚 鄭一龍 委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해서 教育當局의 指導 監督이 부족했었다 하는 事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學籍關係書類를 조작을 하는데 그것도 93年에도 일부 入學金이라든가 착복한 것이 있었고, 育成會費 착복하고, 流用 橫領하고 한 事項들이 93年 監査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94年度라는 것은 今年度라는 얘기입니까, 昨年度라는 얘기입니까?

2年 동안 이런 事項들이 나와서 내부에서 의식있는 教師들에 의해서, 여기는 불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표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만보다는 의식 있는 教師들이 이렇게 나와서 言論界에 일단 通報를 하고 지금 현재 檢察에서 調査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指導 監督 강화가, 물론 여기에 名單을 보니까 몇 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 企劃管理室 所管에 監査要員들이 지금 전부 監査를 한 모양인데 이 監査強化 對策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또 文民政府 들어선 이후에 강한 司正意志가 있는데 아직도

學校에서 이러한 事項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學校, 京機女子商業高等學校뿐이겠느냐, 지금 言論界에서도 그런 얘기고 각계 뜻 있는 사람들 얘기가 뭐, 이러한 것이 私立學校에는 거의 非一非再한 事項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事項들이 다른 學校에 과급되는 경우에 이러한 事項들이 또 터져서 市民들에게 어떤 불안과 그리고 탄식에 그런 輿論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指導 監督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몇 번이나 私立學校에 대한 監査는 어떠한 監査計劃에 의해서 推進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說明해 주시고, 또 지금 檢察에서 손을 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檢察通報에 의해서 行政措置가 나갈 것이예요. 그 전에는 아마 行政措置를 하실 수가 없는데 檢察에서 行政措置 通報가 오면 보통 그저 내부적으로 봐주는 식으로 行政措置가 약화되는 경우가 非一非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教育界의 일대 革新을 위해서도 일과만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강한 行政措置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한번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蘇中天 委員, 質問해 주세요.

○蘇中天 委員; 鄭一龍 委員님께서 또한 金寅東 委員님께서指摘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教育을 擔當하는 學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 맡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은 비단 지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昨年 94年度 常任委員會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다른 同僚委員들도指摘을 했던 事項입니다.

흔히 教育者들은 政治人이 썩었다, 企業人이 썩었다 그러는데 실지는 教育者들이 다 썩어서 안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教育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슴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고, 양심과 뜨거운 가슴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教育者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昨年에도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이라는 스승에 대한, 또한 스승의 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제일 많이 非一非再 일어나고 있는 곳이 教育分野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橫頷을 하고, 法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敎壇에서 분필가루를 마시면서 아이들한테 良心, 道德, 正義 이것은 常任委員會 次元이 아니고, 議會 次元이 아니에요. 敎職者들이 양심에 관한 道德, 이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물러날 길이 없어요. 法으로 보장되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 그 푸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國家를 責任져야 될 우리 아이들한테 그 教育을 擔當하는 教育者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그러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政治人들 조금 시끄러운 것 나오면 아이들 앞에서 저 자식들 미친놈이라고 이런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敎師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常任委員會 몇 분들이 指摘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百年大計의 教育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바르게 우리 敎師들의 양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研究하세요. 아침에 와서 幹部會議席上에서 研究해서는 研究가 되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서 우리 幹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혼자 안 되면 사모님하고도 相議하십시오. 또한 大學

다니는 아이들하고 相議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 敎育에 反映하십시오. 이것은 안 돼요. 法을 따지고, 왜 檢察廳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개탄스러워서 말을 안 하려다.....

어쨌든 잘 해주리라고 믿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問題가 아닙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중앙의 입만 가지고 떠벌리는, 또한 연필과 종이 한 장 가지고 떠벌리는 行政하지 마시고 이제는 6월부터는 地方自治가 本格的인 時代가 들어서면 양심과 땀과 발로 여러분들이 뛰셔야 됩니다. 行政으로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敎育者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專門知識을 나한테 주고 있다, 양심을 주고 있다, 道德, 倫理 이랬을 때 이 나라는 정의롭게 갑니다. 제가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이 指導 監督 責任에 대해서 늘 監査를 했다, 懲戒를 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指導 監督 責任을 물어서 누가 責任을 지고 隱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答辯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金寅東 委員님께서도 指摘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私立學校 엉망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財政이 앞서야 되는데 그 財政自立度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理解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어서 校服에 대해서 아이들 어떨다, 어디를 가보니까 얼마에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라고 다 한다. 책, 실험기구 많은 분야가..... 그러나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우리 서울市議會 議員과 또한 서울特別市 敎育委員, 또 서울特別市敎育廳 關係者, 會計士, 稅務士로 연

대한 監査班을 構成해서 特別監査를 實施할 用意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一龍 委員;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運營費에 비례해서 財團側에 自負擔 比率이 있는지 여부를 좀 確認해 주시고, 지금 어떤 特定の 學校뿐만 아니라 전체의 오늘날 私學이 다 그런 問題點을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學校財團이 튼튼하면 그런 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허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이렇게 커버하고 막고 이렇게 해서 다소 經營上 變태의 經營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政府의 次元에서 稅制上의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財團側에 어떤 收益事業을 권장을 해서 이런 根本的인 非理를 단절할 수 있고, 豫防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권장을 해서 무엇인가 財團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收益事業을 권장하고 어떤 資金支援을 해서라도 그런 하나의 對策을 講究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러한 收益事業을 妥當하게 合理的으로 그런 것을 권장하면 내가 봤을 때 그런 財源을 다소 이렇게 充당해 나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意見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孫馥 委員, 質問해 주세요.

○孫馥 委員; 간단하게 質疑하겠습니다. 앞서서 다해 주셨기 때문에 監査結果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92年度 12월에 設立해서 93學年度부터 新入生 募集을 했는데 현재 卒業生은 없죠? 93, 94, 95 현재 3學年까지로 되어 있는데 年度別로 入學生이 몇 名이며, 卒業生은 없겠죠? 그리

고 93學年度에 92名, 94學年度에 67名이 이렇게 超過募集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學年別로 學生數와 또 超過募集된 159名에 대한 學生處理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除籍 당한 學生들이 몇 名이며, 除籍 당한 事由가 어떤 種類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答辯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먼저 네 분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內容이 거의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個別的인 事項은 별도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國家 百年大計 보루라고 하는 教育界에서 昨年 이맘 때 尙文高等學校 事件이 터진 지 1년도 안되어서 이런, 또한 일이 터져서 여러 委員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鄭一龍 委員님과 나머지 委員님들께서도 공통적인 事項으로서 豫防監査 問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內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監査는 적발위주가 아니라 豫防監査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昨年度에, 그 前年度까지 그런 非理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監査方向을 調整을 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內容은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대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實業學校가 주로 이런 超過募集 學生問題를 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

다 해서 우선 募集定員 關係에서부터 저희가 탄력적으로 運營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定員 56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빠져나가는 學生들을 감안해서 60名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今年度부터는 實施를 하도록 權限을 委任해 준 바가 있고, 또 하나는 入試關聯 業務는 事前에 指導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昨年 11月 7日字로 95年度 新入生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非理가 나타나면 우리가 엄중히 措置하겠다는 경고와 아울러 系列別 入試業務 資料를 취합을 檢討를 해서 그 취합 유형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學校에다 示達을 해서 미리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위 하는 1段階 措置로서 한 事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契機로 해서 2段階 措置로서는 入試關聯 部分 監査를 實施하는데 아까 金寅東 委員님께서도 質問하셨습니다만 監査를 어떠한 方法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까지는 週期로 監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監査를 해 보니까 一定週期로 監査를 하니까 이런 契約분야에 대해서는 事前 豫防指導가 부실했던 것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입시철이면 가장 問題가 되는 學校가 이 實業系입니다. 그 實業系가 商業系가 14個 學校, 藝能系가 4個 學校, 外國語高等學校가 3個校 등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資料로서는 21個校가 가장 契約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判斷 아래 저희가 今年 4月 3日부터 4月 7日까지 이 21個 學校에 대한 一齊點檢을 實施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昨年度와 같은 그런 超過募集이라든가 이런 事項은 發見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더욱 發展시켜서 擴大해 나가

면서 이것을 豫防指導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各種 雜賦金을 근절하기 위해서 市議員님이라든가 教育委員, 또는 저희 이렇게 해서 連帶監査를 實施할 用意는 없느냐 하고 蘇中天 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셨습니다.

이 問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신중히 檢討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監査가 終結이 되는 것을 契機로 해서 다각적인 側面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檢討를 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寅東 委員; 지금은 監査를 못하잖아요? 檢察이 손을 대면.....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蘇中天 委員님께서 중도에 이런 指導를 對象機關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앞으로 豫防監査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一龍 委員님께서 私立學校는 自負擔額이 아주 열악한데 政府 次元에서 收益事業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指導를 권장 내지는 指導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私立學校에서는 法人에 收益用 基本財産에서 생기는 利率의 一定額, 즉 10%이상을 갖다가 學校에 다 轉出하도록 하는 그러한 規定 外에는 別途對策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公立學校 財政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막대한 金額을 私立學校까지 支援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私立學校에 問題도 될 뿐더러 저희 教育廳에 중대한 問題이기 때문에 私學法人에서 運營하는 各種 收益事

業이라든가 여러 가지 側面에서 이것은 稅制에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方案을 저희가 종전에 政府 機構가 改編되기 전에는 經濟企劃院이나 財務部, 지금은 財經院이 되겠습니다만 또는 教育部와 여러 차례 建議도 했고, 아직도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理解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寅東 委員님께서서는 지금 현재 檢察에서 수사 중이니까 檢察 通報가 오면 보통 전례로 봐서 行政措置가 부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충고가 계셨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진하게 한 것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私學이건 公立이건 教育界의 非理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所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契機로 해서 檢察에서 通報가 오면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行政力은 總 集中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강한 措置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孫馥 委員님께서서는 學事 分野面에 있어서 年度別 入學生, 學年別 學生數, 또는 除籍된 學生數, 事由 등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諒解를 해 주신다면 제가 書面으로 報告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細部的인 內容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諒解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孫馥 委員; 超過募集된 學生數의 處理는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超過募集된 學生數의 處理에 대해서는 제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報告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그 159名에 대한 處理內

譯을 은폐하기 위해서 書類를 조작한 것도 있고, 不實記載한 것도 있었는데 주로 除籍시킨 事由가 뭐냐 하면 보통 한 1週日 内外 결석을 했다든가, 또는 그 學生이 여러 가지 學校 나 름대로 調査를 해봐서 修學能力이 없고 불량성이 있다든가 이런 事由로서 除籍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대부분은 결석을 트집잡아서 除籍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孫馥 委員; 超過募集된 學生들에 대한 앞으로 措置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教育監査 다 했지 않습니까? 教育側面에 監査를. 監査3係長을 위시해서 다 가서 했는데 教育的인 側面에서는, 물론 資金을 유용했다든가, 아니면 뭐를 違反했을 때는 檢察에 告發해서 處理하는, 學生들에 대한 處理는 어떻게 하느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그것은 擔當局長이 직접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자세한 報告를 해 주셨습니다. 定員 超過된 學生들의 處理方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런 問題로 인해서 여러 委員님들 심려 끼친 것, 아까 우리 室長님께서도 사과 말씀드렸습시다만 中等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中等教育局長으로서는 더한층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한 委員님들이 지금 指摘하셔서 말씀하신 內容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事例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指導監督을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超過募集이 93學年度에 92名, 94學年度에 67名 해서 159名입니다. 그런데 超過募集을 하게 된 理由가 委員님들 다 아시

다시피 이 學校가 正規學校가 아니었었습니다. 92學年度까지는 소위 말한 전수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수학교였던 것이 93學年度부터 正規學校로 改編이 되어서 正規學校로 出發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各種 學校였기 때문에 學生數가 들락 날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追加募集한 곳이 京機女子商業高等學校가 晝・夜間으로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晝間學生들은 대부분 자기가 처음에 試驗을 봐서 응시를 해서 들어왔는데 夜間學生은 몇 次 人員數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追加募集을 했습니다. 그래서 追加募集을 한 學生 중에서는 夜間에 다니기 싫어서, 부모의 권고에 의해서 억지로 夜間에는 왔는데 실제로 夜間에 다니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與件이 맞지 않아서 부모들도 登錄은 해놓고, 부모들 권유에 의해서 또 缺員된 다른 學校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學校에서는 자연감소에 의한 充員을 對備해서 追加募集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月 3日 開學式 이후에 보니까 追加募集해 놓은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정식으로 募集한 애들 중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자리에 계속 메꾸었습니다. 계속 메꾸어서 지금은 定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缺員이 없습니다. 追加募集된 學生을 자연히 缺員 자리에 갖다 계속 메꾸었으니까 學生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定員 內에 包含이 되어서 지금 學校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商業學校 夜間은 學籍에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뭘고 하니 중간에 있다가 다른 學校로 轉學을 가죠. 또 地方으로도 가고, 晝間으로도 오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夜間에 있는 學生은 다른 學生에 비해서 學力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탈락자

가 생기면 그만큼 學校에 財政的인 運用이 어렵기 때문에 學校로서는 이런 變態적인 運營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익히 알면서 계속 團束을 해도 이런 問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追加募集 學生들 處理問題는 定員 內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問題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確認이 되었습니다. 理解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앞으로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철저하게 努力을 하도록 하겠고, 또 蘇委員님께서 教師가 감히 그런 짓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백 번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孫馥 委員; 追加募集이 아니고 超過募集 아닙니까?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그렇죠. 超過募集이죠.

○孫馥 委員; 그러니까 정원 오버해서 모집한 것이죠?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처음에 오버해서 募集을 해 뒀다가 자연감소가 되면 그 자리에 계속 메꿨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吳柳根 委員; 그것은 教育을 맡은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히 答辯하실 次元이 아니죠. 孫馥 委員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느 學校든지 夜間 中·高等學校가 있는 學校는 애당초 定員에 한 10%면 10%를 더 募集을 해도 監督官廳에서는 問題가 없다, 일시적인 어떤 慣例로 보는 것이다 하는 答辯밖에 안 되는 것이고, 비단 夜間高等學校가 있는 學校가 京畿女商뿐은 아닐 텐데 무려 지금 159名이나 超過募集이 된 것에 대한 學生에 措置나 對策을 孫馥 委員님이 물으셨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豫備 候補로 와 가지고 卒業할 때쯤 되면 定員에 맞아떨어집

니다 하는 얘기는 答辯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는 超過募集을 했을 때에 教育廳으로서 어떤 措置를 한다는 明文規定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超過募集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그렇죠.

○吳柳根 委員; 다만 缺員이 생겼을 때 어떠한 代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超過募集을 무려 學生이 159名이면 1,500名 중에서 10%정도나 더 募集을 했는데 그것이 缺員이 생기면 메우고 그렇기 때문에 問題點이 없다, 이렇게 答辯할 수 있는가, 措置가 단 1名을 超過해서 募集했다라도 教育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私學의 指導 監督에 대한 철저한 方向提示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所信을 듣자고 묻는 것이지 뭐, 이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하나 둘 缺員이 생겼다면 비단 이 學校만 缺員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超過募集을 한 學生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 卒業하는데도 이렇게 非理가 發生해서 무조건 學校만 들어가면 卒業이 되느냐, 學生에 대한 措置는 절대로 없는 것이냐, 또한 對策이 무엇이나, 이런 것을 좀더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어물어물해 가지고 이것은 다 合理化된다. 159名이나 더 募集을 해 놓고 어떻게 지금 2年, 3年 지난 뒤에 定員이 충당이 되며, 또 아까 正規學校가 아닌 전수학교 시절은 92年度라고 했고, 93年度부터는 正規學校로 인정을 받은 이후란 말이에요, 問題가 발생한 것은. 私學이 전수학교로 있을 적에 거기에 適用받는 그런 現實하고, 正規學校로 들어왔을 적에 또 教育委員會에서 制裁와 責任과 義務가 강했을 텐데 전부 93年度 正規學校 이후에 들

어가 가지고 159名이라는 엄청난 人員을 超過募集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答辯할 수 있는 것이지요?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柳根 委員; 超過募集을 한 것에 대한 責任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부터 答辯해 보세요.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超過募集에 대한 것은 지금 學生處理를 孫馥 委員님께서 超過募集 學生處理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答辯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超過募集을 한 데 대한 學生處理는 學生들한테 不利益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報告를 드렸고, 그 다음에 超過募集했다고 하는 그 自體에 대해서는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는 다음 學年度 學生募集을 할 때 學級減縮 等 강력한 措置를 지금 저희가 시키려고 計劃을 하고 있고, 다른 學校에도 그렇게 超過募集한 學校에 대해서는 超過募集한 狀況에 따라서 學級減縮을 지금까지도 實施하고 있고, 이 學校에 대해서도 앞으로 實施할 그런 計劃으로 指導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吳柳根 委員; 세 분의 委員님께서 온 國民이 생각하는 공감적인 이야기를 다 해 주셨어요. 또 指摘해 봐야 그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듣고만 있는 실정이고 가슴에서 공감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우리 社會가 어느 分野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全般的인 改革과 變化를 통해서 文民政府가 새로운 秩序 속에서 世界化를 향해서, 國際化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教育이 國民들에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分野도 政治分野나 社會分野도

많이 問題가 있지만 教育分野에 더더욱, 우리 後世들을 양성시키는 教育分野에 더 많다는 것은 다 社會가 이미 벌써 問題點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定員을 159名씩이나 超過募集한 것을 中等教育局長이라는 우리 局長께서 問題가 없다, 이렇게 答辯할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超過募集에 대해서는 엄격한 敎訓을 삼아서 어떤 定員에서 그만큼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네.

○吳柳根 委員; 만약에 500名 募集한 데에서 100名이 超過되었으면 400名 募集하는 그것도 철저히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도 超過募集을 159名 정도 했으면 이것은 校長이나 財團에서 責任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措置를 취해 줘야지 이런 형식적인 監査만 가지고, 또 넘어가 가지고 다른 學校에서도 아, 超過시켜 봤댔자 별다른 責任이 안 돌아오니까 오히려 악의 어떤 소생을, 이런 不正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자꾸 教育廳이 눈감아 줌으로써 그것을 惡用하는 그런 教育非理가 많지 않느냐, 1名만 더 超過募集해서 단호한 措置를 하면 超過募集을 절대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人員이 생기면 充員하려면 얼마든지 募集하면 學生은 몰려들게되어 있으니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말하자면 93年度에 159名을 더 超過募集해 놓고 3年間に 나누어서 50名, 50名 減縮된 人員을 충당한다든지 하는, 그러면 그 동안에 2年 동안에 100名의 이중적인 授業料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그런 處理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法이 엄격히 규정한 問題를 違法을 하고도 教育機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이 현실적인 社會가 과연 새로운 教育制度의 定着에 어떤 지표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이것은 단호하게 답을 줘야지, 우리가 참 듣기가 민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委員님들이 한마디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10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분 委員님들이 가슴 아픈 애정 어린 말씀을 다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問題가 없다.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問題가 없다고 하는 것은 超過募集을 한 學生에 대한 處理는 지금 定員內로 다 들어와 있고, 또 超過募集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물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단호한 措置가.....

○吳柳根 委員; 지금까지 教育을 運營해 오시면서 超過募集을 한 學校에 대해서 단호한 措置를 한 前例가 한 件만 들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이것은 特殊學校는 아니겠습니다만 효성여상에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學級減縮을 昨年에 시켰습니다. 人員數는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4學年度에 동광상고 6學級 減縮을 시켰고, 효성여상도 減縮을 시킨 바 있습니다.

○吳柳根 委員; 하여간 全體的인 社會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적어도 教育廳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教育的인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教育者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教育者로서, 教育監의 傘下에 있는, 우리 教育을 監督하는 國民들의 그런 자체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면 우리 나라 社會가 안고 있는 制度的인 問題, 現實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教育廳에서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問題는 연대적인 責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教育廳으로서 教育監의 職權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하고 있고, 아까 監査를 계속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런 것이 指摘되었지만 발견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발견을 못하고 무슨 監査를 했다는 것이에요? 監査를 했는데 왜 한 件도 발견을 못하고 이제 特別監査하니까 수십 건이 뛰쳐나오고 定員을 159名씩 초과해 놓고 問題가 없다는 것이 責任 있는 答辯이에요?

좀더 우리가 어려운 實情에 있으니까 所信을 가지시고 教育이라는 그런 양심에서 教育廳으로서 教育監이 할 수 있는 일은 말로만 단호하게,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意識의 改革이 나는 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느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마치고 本 件 業務報告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33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關係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존경하는 李喆鎬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님, 個別的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만 지난 31日字로 文化觀光局으로 發令을 받은 金光市입니다.

그 동안 文化教育委員會에서 積極的인 活動과 支援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文化라든가 觀光, 그리고 國際交流에 많은 발전과 이바지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常任委員會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委員님 여러분의 많은 指導 鞭撻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局에서는 今番 臨時會에 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改正案과 아울러서 서울館設置條例改正案을 上程하였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당초 서울에 國際化 推進을 支援하고 諮問하기 위하여 지난 94年 8月 10日字로 制定된 바 있습니다. 종래의 國際化施策 推進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概念導入과 世界化施策 推進으로 轉換함에 따라서 委員會 명칭을 國際化推進協議會에서 世界化推進協議會로 變更을 하고, 各 分野에 民間專門家の 參與를 높이고자 市議員님 네 분을 포함한 열 다섯 委員을 20人으로 늘리고자 이번 改正案을 上程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世界化推進協議會로 명칭을 變更하고 委員數를 20人으로 늘리는 것을 內容으로 해서 이 改正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內實 있는 運營을 통해서 서울 世界化推進에 만전을 기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으로부터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5. 서울特別市서울館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39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서울館設立運營에 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 관한條例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本 條例는 서울 世界化事業의 一環으로서 推進 중인 海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本 委員會에서 報告되고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支援과 협조로 今年度 豫算에 確保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현재 서울館設置運營基本計劃을 마련하고, 今年 중에 北京과 LA에 서울館 開館을 目標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 條例는 海外에 設置되는 서울館이 서울市로서는 처음으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이므로, 또 이에 따른 豫算도 投入되고 市議會와 보다 긴밀한 협조 아래 推進되어야 된다는 것이 本 觀光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 관한條例를 地方自治法이라든가 關係規定에 따라서 上程하게 되었으며 여러 委員님들의 많은 高見과 指導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條例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設置對象都市를 姉妹友好都市든 海外 主要都市로 하고 서울館의 機能을 海外都市와의 交流協力과 先進情報蒐集, 특히 서울에 있는 中小企業의 海外進出 支援과 서울市政 弘報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품 전시라든가 무역중계 등 專門分野 業務를 效率적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民間部分과도 협조를 해 나가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 條例의 制定에 委員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支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서울에 國際競爭力 과 情報力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中小企業에 活力을 더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로 인한 世界化를 한 층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 推進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 관한 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善童 要員, 質問해 주세요.

-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今番 서울特別市가 서울 世界化推進의 一環으로 準備 중에 있는 世界 主要都市에 서울館設置運營에 관하여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館을 運營함에 있어 委託運營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長點과 短點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고, 서울館에 參與하는 有關團體들과의 相互協助 事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서울館設置 對象都市를 選定함에 있어 長期

的인 관점에서 非修交國의 都市도 對象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올해 設置豫定인 都市로 LA와 北京이 選定되었는데 이곳에 이미 派遣되어 있는 서울館과 類似한 機能을 가진 民間機構의 現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條例案에서는 서울館이라는 명칭을 使用하였는데 今年에 設置할 計劃으로 있는 北京과 LA에서는 어떠한 명칭을 使用할 計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東 委員; 政策指導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서울館을 設置運營한다는 事項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目的이라든지 機能이라든지 이런 것을 檢討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機能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지금 委託을 하겠다 이런 計劃이 되어 있는데 이런 委託을 할 때 問題點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칫 서울館이 그런 商品展示館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指導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機能에 관해서 조금 이것이 나 같으면 機能에 대한 順序라고 할까, 여기를 보면 海外都市와의 交流協力支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갈 것이 아니고 서울의 市政文化 및 觀光 海外弘報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問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機能에 있어서.

왜냐 하면 世界는 지금 巴야흐로 이미지 競爭時代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美國 그러면 튼튼하다, 믿을 수 있다, 獨逸은 성실하다, 日本은 편리하다 또 이태리는 화려하다, 불란서는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

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 끼어서 파는 식으로 해서 싸다 하는 이런 식인데 싸다는 것은 不實도 같이 容納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國際競爭力時代에 있어서 우리 이미지 競爭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이미지, 서울의 이미지 그러면 바로 그것이 大韓民國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고 우리의 商品이 어떻게 팔릴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交流가 擴大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를 높이는데 따라서 모든 것이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는 그 問題에 대해서 可能하다면 그런 機能에 대한 順序같은 것도 한번 다시 檢討할 必要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여기 條例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 죽 檢討를 해 보니까 서울市政에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못하면 外交 領事業務와 괜히 상충되는 수도 있습니다. 民願事項을 解決한다든지, 아까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領事業務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條例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누구한테 說明을 하더라도 外務部와의 이런 상충된 業務 이런 問題는 外交的인 業務에 紛爭이 없도록 사전에 調整을 해 주실 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서울館에 英文表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英文表記도 잘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世界化해 가지고 알파벳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서울館도 英文表記이 아주 상큼하고

금방 意義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表記方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은 答辯은 必要 없고 政策指導로 일단 그런 問題點과 또 시정에 이것을 建議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答辯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朴善童 委員님께서 좋은 점을 指摘해 주시고 指導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서울館을 委託運營時에 어떤 것이 長點이고, 短點이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서울館을 設置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市政을 제대로 알리고, 서울을 金寅東 委員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의 이미지를 높임과 동시에 지금 世界化, 또 WTO의 無限競爭時代에 있어서 地方自治의 서울에 있는 中小企業體들, 大企業은 물론이겠습니다만 中小企業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活性化하고, 어떻게 世界化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 支援方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우리 地域, 서울시의 中小企業을 積極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支援하고 또 서울의 이미지와 서울의 弘報와 서울의 資料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先초기지로 서울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公務員이 非專門家입니다. 사실 서울館을 만들고 公務員이 거기에서 일을 한다면 貿易競爭時代에, 또 世界化時代에 非專門家이기 때문에 이것을 專門集團, 專門家로 하여금 정말 效率的이고, 정말 內實 있게 運營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방으로 우리가 關係部處와 협의를 한 결과, 科學技術處에서 技術協力과 中小企業協력을 위해서 특별히 國家에서 設立한 韓國金融技術開發會社가 있습니다, 科學技術處 傘下에. 그래서 그 會社가 北京에도 기술팀을 파견하고 있습

니다. 상담팀을 派遣해서 있기 때문에 그 會社가 아울러서 우리 서울館을 管理 運營해 준다면 본래의 그 會社가 國家事業으로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부합되고 하기 때문에 그 機關으로 하여금 委託하는 것이 아주 專門적이고 效率적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委託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有關團體와의 協助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貿易振興公社와 關聯해서 大韓民國振興公社는 물론이고, KOTRA하고 外務部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北京이면 北京에 나가 있는 常駐하는 職員들도 우리 서울館에서 같이 協議를 하고 業務를 같이 處理할 수 있다고 이렇게 協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對象都市를 어떻게 選定했느냐, 今年에 北京하고 LA를 選定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貿易振興公社하고 通商産業部하고 協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貿易振興公社와 通商産業部の 意見이 우선 가장 市場 잠재력이 크고, 서울에서 있는 中小企業體들이 活動하기 可能的한 곳이 우선 北京하고 LA가 유망한 地域이다 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北京은 姉妹都市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北京을 設置하고, 그 다음에 LA를 設置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非修交都市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發展시키려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今年에 設置하는 北京과 LA에 이미 派遣한 機構와의 關係는 어떠냐고 했는데 지금 北京에는 없습니다만 中國에 仁川하고 이런 데에서 商品展示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公務員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問題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問題가 많은 것도 우리가 事例를 參考로 해서 많이 補完을 했습니다만 뿐만 아니고 나가 있는 大韓貿易振興公社라든가, 商工會議所 그런 곳하고도 충분한 協助를 해서 우리 서울館을 중심으로 해서 活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會議를 하고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問題點이 있는 것에 대해서 補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補完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館은 서울館대로 活動을 하고, KOTRA는 KOTRA대로 活動을 하고, 商工會議所는 商工會議所대로 活動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서울館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協議를 해 가지고 總體的으로 한줄기로 市場開拓을 하고 弘報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로 名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專門委員도 報告가 있었습니다만 北京일 경우에는 名稱이 서울館이 안 될 可能性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한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北京에서 간판 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다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北京에서 이러 이런 간판을 달아달라, 서울館이 아니고 한성관으로 해 달라든지, 영어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檢討를 해서 그 關係는 충분히 委員님들과 報告를 드려서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도 서울館으로 아까 名稱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아직 確定이 안 되었습니다. 檢討가 되면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金寅東 委員님께서 政策質疑로써 좋으신 助言을 주셨는데 機能에 있어서 서울市政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우리 서울館에서 주된 機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條例上에는 順序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優先順位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市政과 서울에 대한 觀光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協約을 할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外務部와의 關係, 또 通商産業部와의 關係, 貿易振興公社와의 關係는 그 동안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완벽한 運營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進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 關한條例案에 關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

○鄭一龍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鄭一龍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一龍 委員; 아까 朴善童 委員님과 金寅東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館이라는 名稱을 가지고 專門委員이 檢討한 事項과 같이 對象都市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시되어 本 條例案이 規定한 서울館만을 고집할 경우 條例制定의 實效性이 의문시되므로 서울館이라 함은 그 名稱如何에 불문하고 海外主要都市에 設置되는 것으로써 市長이 별도로 告示한 것이라는 用語의 定義를 新設하고자 修正 動議하며 자세한 內容은 油印物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鄭一龍 委員께서 原案에 대해서 修正案을

내놓으셨는데 서울館이라함은 그 名稱如何에 불문하고 海外 主要都市에 設置되는 것으로써 市長이 별도로 告示한 것이라는 用語의 定義를 新設하고자 修正案을 提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6.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
(鄭一龍 議員 發議)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鄭一龍 委員의 修正案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므로 正式議題로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또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해서 鄭一龍 委員이 提案한 修正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鄭一龍 委員이 提案하신 修正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運營에關한條例案에대한修正案

(뒤에 실음)

7.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關한請願審查小委員會結果報告

(12時 01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風納土城復元區域內 未補償部分 補償要求에 관한 請願調查小委員會 結果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孫馥 委員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請願審査小委員長 孫馥; 小委員長 孫馥 委員입니다.

1994年 11月 14日 서울特別市 松坡區 風納洞 78-6號 경중문으로부터 金鍾雄 議員의 紹介로 提出되어 同年 11月 15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風納土城復元區域內 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 관한 請願審査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우선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第1次 小委員會 經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95年 3月 13日 10時 30분에 文化教育委員室에서 小委員長인 저와 蘇中天 委員, 梁元模 委員 그리고 執行部側에서는 文化觀光局長, 文化財課長, 또 松坡文化公報室長, 補償係長 그리고 專門委員이 參席하였습니다.

質疑 答辯 要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補償方案과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方案에 대한 住民의 반응과 執行部の 見解를 물었고,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時 다른 地域에서도 解除要求가 따를 가능성에 대한 對策과 解除 後 文化財 補償 問題點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文化觀光局長의 答辯은 補償은 豫算確保의 어려움으로 民願이 長期化되고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解除의 필요성을 檢討하고 있으며, 解除時 千戶大路와 접한 文化財 保護區域은 公園으로 既 指定되어 있어 차후 街路公園으로 造成할 수 있으므로 請願地域은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에 따른

他 民願 및 文化財 補償問題가 없다고 判斷되며, 또 既 復元된 土城과 住宅地域間에는 消防道路가 일부 開設되어 있어 保護區域 解除時 消防道路의 延長開設이 가능하므로 請願人들의 財產權을 保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討論要旨는 補償時에 따르는 豫算確保 問題, 또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時에 따르는 連鎖的 民願發生 問題 및 文化財 補償問題點에 대하여 深度 있는 討論을 한 結果, 전반적으로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의 필요성이 있다고 判斷되어 本 小委員會에서는 文化財保護區域解除建議案을 提出기로 參席委員 全員이 滿場一致로 決定하였습니다.

그러면 意見書 採擇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7年 1次復元時 未補償된 地域은 2次 復元計劃의 推進 中임에도 豫算確保의 어려움으로 補償을 받지 못하고 있어 住民들의 財產權 侵害에 따른 民願이 상존해 온 狀況에서 本 請願이 提出된 바, 이에 대하여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住民들은 補償을 하든지, 아니면 文化財 保護區域을 解除하여 財產權을 保護하여 주든지를 要求하고 있는바, 補償은 豫算確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民願을 長期化시키고 있으므로 文化財 保護에 問題가 없는 範圍內에서 文化財 保護區域을 解除하여 長期的인 民願을 解消하고자 하며, 아울러 市長에게 文化財 保護區域 解除 등 가능한 措置를 취하고 조속한 時日 內에 請願의 趣旨를 적극 수용하여 長期的 民願을 解消토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委員長님과 同僚委員님 여러분, 아무쪼록 小委員會가 現場踏査 등 深度 있게 審査하여 報告드릴 대로 意見書案을 採擇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本 小委員會 審査報告를 전부 마치고 本 小委員會 活動을 終結코자 합니다. 資料提供에 애써 주신 執行部 關係 公務員과 文化財 委員,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李喆鎬; 孫馥 小委員長,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孫馥 小委員長으로부터 小委員會 結果報告와 아울러 孫馥 委員이 發議하고 梁元模 委員이 贊成한 意見書 採擇案이 書面으로 접수되어 正式議題로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서울特別市 松坡區 風納洞 78-6 경 중문으로부터 提出된 風納土城 復元區域 內 未補償部分 補償 要求에 관한 請願은 孫馥 委員이 提案한 意見書案대로 採擇 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孫馥 委員이 提案한 意見書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8. 世宗文化會館地下駐車場에關한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12時 0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世宗文化會館地下 駐車場에 관한 報道事項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世宗文化會館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世宗文化會館長입니다. 저희들 地下駐車場 報道關聯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世宗文化會館地下駐車場에關한報道事項에대한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質問해 주세요

○蘇中天 委員; 蘇中天입니다.

지금 館長님이 答辯하시기 以前에 저희들도 駐車施設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에서 報道한 內容 中에 보면 觀람객의 地下駐車場 利用率이 저조하다는 것하고, 駐車場 일부를 任意用途變更, 倉庫 등으로 活用했다 그래서 駐車空間을 잠식했다고 그랬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 우리 館長님의 答辯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部分에 대해서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利用率 저조는 지금 한 편이 地下 鐵工事 關係로 閉鎖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後庭에, 대개 觀 객이 오면 뒤駐車場으로 오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금 案内標 示板을 크게 그려서 저희들 請警들이 그쪽으로 案内를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利用率이 增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倉庫는 아까 報告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품 같은 것이 십수년 썼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空間을 그렇게 活用했는데 다시 그 倉庫를 閉鎖를 하고 다른 곳에 保管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部分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또 質問하실 委員님들.

○孫馥 委員; 그런데 KBS記者가 왜 이것을 報道했을까요?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그것은 저희 주관도 좀 있습니다만 어느 記者분이 거기 利用을 아마 낮에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거기는 저희들이 晝間에는 악기 같은 것 運搬하는 團員들한테만 쓰인다는 그런, 使用할 수가 없으니까 이를 동안 와서 그것을 觀察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報告드리면, 그 映像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團員들이 3時 30分 정도 되면 연습을 끝내고 대개 갑니다.

그러면 公演은 7時 30분에 하기 때문에 觀客은 6時 30分 이후에 駐車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停車場이 사실은 빅니다. 그때 그것을 撮影을 했습니다, 텅 비었다고. 이것은 一般市民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것은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로부터 言論에서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施設補完 政府行事 爲主로 해서 그것을 閉鎖했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전에 報道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도 聯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거기에 가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入口에 있는 분들이 請願警察입니까?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네.

○委員長 李喆鎬; 그 분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불친절한데 그런 데에서 아마 감정이 유발되니까 좀 거기에 친절하도록 배

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서울시議會 常任委員會같은 데는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는데 어떤 때는 空間이 있는데도 저리 돌아서 가버리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誘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親切本位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고 本件 業務報告의 件을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시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業務報告

(12時 1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시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市立大學校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企劃研究室長을 맡고 있는 崔良秀입니다.

오늘 저희 大學校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시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러한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오늘 午後 2時 財務經濟委員會에 上程되기 때문에 本 文化教育委員會가 저희 大學의

所管을 맡고 있는 委員會에서 사전에 報告말씀을 드리고 저희 大學 運營에 대한 전반적인 問題에 미연에 委員님들이 高見으로써 저희들 大學運營에 대해서 診斷을 해 주십사 하고 報告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喆鎬 委員長, 金仁雨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仁雨; 그러면 本 件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蘇中天 委員; 蘇中天 委員입니다.

副總長制 新設에서 보면 副總長 1人을 둔다. 1人은 總長은 學校發展을 위한 對外活動에 치중하고, 學內 學事行政은 副總長이 實質적으로 管掌함으로써 大學運營에 效率性 提高라는 側面인데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면 서울大 1名, 仁川大 1名, 延世大 4名, 延世大하고 高麗大 세 분, 네 분에는 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제가 현재 延世大學을 먼저 예를 들면 學事副總長, 醫務副總長, 그리고 涉外副總長, 그리고 延大는 發展基金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發展基金擔當 副總長制를 新設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4個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高麗大學은 아직 현재 副總長學事, 醫務, 涉外 세 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래서 그 問題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副總長님을 한 분 두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 立大學도 어떤 經營을 擔當하는, 財源을 調達하는 그런 次元이라고 그러면 지금 延大에서 보면 延大發展基金을 아주 성

공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꼭 부득이한 분보다는 學事를 擔當하는 것하고, 經營側面 해서 두 분 정도 되서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저희 大學枚로서는 지금 蘇委員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副總長制를 최소 2人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提案이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國立大學의 경우는 總長과 副總長을 둘 수 있으며 라고 해서 현재 서울大學 副總長制 저희 모델이 처음 다루는 것으로 됩니다.

○蘇中天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專門委員 檢討를 보면 지금 附設研究所를 名稱을 뒤야 된다는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하고 지금 아주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더라도 하나의 名稱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專門委員이 檢討한 報告대로.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그 동안 저희들이 條例하고 職制規則, 學則에 지금 死文化되어서 附屬機關과 研究所가 分割이 되었는데 이번에 統一을 하려고 하는 趣旨에서 條例로써 한꺼번에 整備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整備를 하더라도 公式的인 名稱은 아니잖아요. 公式的인 名稱을 뒤야 할 것 아닙니까? 다 整備를 해 가지고 하나는 뒤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名稱은 안 나왔죠, 條例上으로 條例에다 名稱을 明文化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지금 改正案에서 원래 現行에서는 자료 좌편에 보시면 附屬機關과 大學 및 附設機關으로 되어 있

습니다만 현재 附屬機關 및 附設研究所를 둔다라고 統一을 하면서 나머지 細部的인 設置運營에 관해서는 規則으로 정한다라고 改正案이 提出이 되어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 研究所, 學生生活研究所 이런 것이 나열될, 規則에 또 다시 이렇게 나열될 憂慮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蘇中天 委員; 알았습니다.

○金寅東 委員; 여러 가지 大學政策에 전환기이면서 얼른 보면 副總長制度 같은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大學校가 副總長制를 導入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제가 알기로는 서울大學校 設置 이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寅東 委員; 그런데 지금 저는 얼른 생각이 되는데 國·公立大學校에 上位職級新設, 말하자면 政府方針이 지금 上位職級新設을 抑制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여기 條例를 改正해서 그냥 덮어놓고 副總長制를 新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中央部處와의 교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덮어놓고 올려 가지고, 專門委員 그런 것 檢討도 안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올립니까?

○專門委員 金長虎; 이것은 財務經濟委員會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金寅東 委員; 별도로 하더라도 별도 한 다음에 그런 順序로 하든지 그러지, 副總長制新設같은 問題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겨도 괜찮은 거야? 아니, 上位職級 新設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 政府方針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專門委員이 檢討를 해서 우리 委員들, 앉은 자리에 우리 전부 무식이 탄로돼요, 나는 지금 급히 봤다고.

그런데 이것은 財務經濟委員會가 檢討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檢討해야 될 것은 뭐예요?

○專門委員 金長虎; 우리는 意見聽取만 하는 것입니다.

○金寅東 委員; 意見聽取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答辯 한번 해 보세요. 政府와의 承認事項일텐데 이것이 人事問題로서 解決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政府方針이 지금 上位職級 新設 억제하고 있습니다. 專門委員도 급히 財務經濟委員會에 알려줘야 돼요. 專門委員이 충분히 檢討해야 된다고, 덮어놓고 여기서 똑딱 두들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政府의 方針도 모르고 덮어놓고 여기서 條例만 改正하면 副總長 감투 하나씩 똑똑 떨어지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지금 金寅東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政府에서 上位職 억제를 한다는 方針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大學의 경우는 이번에 自治團體인 仁川市立大가 저희들보다 조금 後發大學으로서 늦게 市立化되면서 仁川市立大도 副總長制度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 大學의 경우는 그 동안에 總長의 業務 集中으로 인해서 市立大學 나름대로의 副總長制를 이번에 新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側面들이 總長은 對外活動에 치중을 하고, 學事行政은 副總長이 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많이 反映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副總長制 職級이 總長織으로서의 어떤, 물론 行政을 말씀니다만 이것이 既存 教授의 補職이기 때문에

이 副總長制 新設로 해서.....

○金寅東 委員; 副總長制가 되면 바로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우선 발을 들여놓고 두 발 다 들여놓고 몸뚱아리 다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 副總長 되면 책상 하나도 안 놔줄 것입니까? 방 하나 따로 안 만들어 줘요? 전화, 집기 안 사줄 것입니까? 왜 그렇게 對答을 하세요? 自動車 사 줘야죠, 나중에 발 들여놓으면 몸뚱아리까지 다 들어간다고.

사실 내가 豫算 따지고 싶어요. 지금 豫算問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豫備費 가지고 處理할 거예요? 이런 問題들이 충분히 檢討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副總長 教授만, 教授는 겸비하고 發승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禮遇上 적어도 總長 바로 밑에 있는 2人者인데 어떻게 教授로 兼補한다 하더라도 任務는 다른 거예요. 任務에 따른 禮遇를 해 줘야 되는데 禮遇에 따른 여러 가지 問題들이 사실은 지금 檢討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鄭一龍 委員님.

○鄭一龍 委員; 저도 金寅東 委員님이 말씀한 대로 同意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質問 아닌 저의 所見을 말하고자 하는데 서울大, 仁川大, 延世大, 高麗大, 서울大는 대충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 延世大나 高麗大는 사실상 방대한 學校 아닙니까? 그래서 機能을 세분화하는 데 다소 필요로 느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市立大學校가 全體的인 이런 현상도 아닌데 豫算을 浪費해 가면서 政府方針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對內外的으로 總長과 副總長의 機能을 나눈다는 막연한 의미만 가지고 副總長制를 新設한다는 것은 내 個人的인 意見으로는 反對를 합니다. 뭔가 市立大學이 어느 정도의 階度 위에 機能이 多樣

化되어 가고, 어떤 業務分掌이 그런 必要性을 느꼈을 때 그런 時點에서도 충분한데 어떻게 감히 여기에 仁川大가 그러니까 그런다, 어느 學校가 이러니까 우리 서울시立大學도 이른다. 延世大하고 高麗大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意見은 金寅東 委員님도 指摘했습니다만 副總長制 新設은 제 個人的 意見으로는 反對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仁雨; 또 다른 委員님, 蘇中天 委員님.

○蘇中天 委員; 金寅東 委員님과 鄭一龍 委員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見解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副總長을 둠으로 해서 어떤 거기에 소비되는 豫算이라든가 人力 다 충분히 理解를 하겠지만 지금 條例案 第6條를 制定하면서 上位法에 의해서 한 것이죠?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네, 그렇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면 그것을 答辯을 해 주셔야지, 우리 委員님들한테. 그리고 法에 問題가 없다고 하더라도 問題가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個人的으로 어차피 學校든, 우리 서울시든, 地方自治團體든지 간에 이제는 어떤 1인이 지배하는, 管理하는 그런 時代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總長님이 할 일이 있고, 副總長制가 新設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經營의 側面에서도 우리가 私立大學校와 國立大學校를 같이 할 수가 없지만 지금 延大에서 宋梓 總長이 推進한 어떤 延大 기금 마련은 상당한 호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法에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執行部에선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上位法도 갖다 근거를 대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고 財務에서도 납득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 法에 問題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겠다 라는 答辯을
지금 準備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金仁雨; 執行部에서 答辯하기 위해서 한 10분
간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39分 會議中止)

(13時 繼續開議)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寅東 委員; 記錄에 남겨야 되겠는데 이번에 副總長制를
新設하는 경우에 거기에 所要되는 豫算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 豫算에 대한 執行計劃은 어떻게 될 것인지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所要 豫算은 제가 金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자세한 答辯이 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推定值를.....

○金寅東 委員; 좋아요, 推定值나마 答辯이 제대로 나올 수
없을 테니까 그런 豫算問題에 대해서도 일단 會議錄에 제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豫算問題에 대한 것을 書面으로 報告해 주시고, 豫算
問題가 일단 여기서 問題가 났었다 하는 얘기는 記錄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車奉五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車奉五 委員; 車奉五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아무래도 市立大學校의 發展과 合理的인 運營을 위
해서 執行部에서 副總長制를 新設하기 위한 意見聽取가 왔는

데 이 내용이 財政問題와 關係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同僚委員께서 상당히 염려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上位法과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염려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文化教育委員會 委員의 立場에서는, 제 個人的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 意見聽取이기 때문에 일단은 市立大學校의 運營과 發展, 合理的인 經營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上位法이라든가 다른 問題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意見を 討議할 때 修正되리라고 믿고 우리의 立場은 역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原案대로 그냥 意見聽取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 答辯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고, 本件 業務報告聽取의 件은 金寅東 委員의 意見으로 副總長 職級을 두는 것은 政府에서 上位職級의 억제방침에 상충되는지, 또 豫算을 수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意見이 前提될 것으로 意見を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車奉五 委員께서는 市立大學校의 發展과 合理的인 運營을 위하는 일이라면 上位法에 있는 條項이므로 意見聽取하는 것으로 原案대로 開陳되었다고 하는 意見を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鄭一龍 委員은 副總長 職級을 두는 것은 全國 國立大學校에는 두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反對하는 意見으로서 開陳된 것으로 우리가 전부 聽取하는 意見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이 聽取의 件은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일찍 나오셔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06分 散會)

○出席委員

李喆鎬 金仁雨 蘇中天 金寅東

朴善童 孫馥 梁元模 吳柳根

李永輔 鄭一龍 車奉五

○專門委員

金長虎

○出席公務員

教育廳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中等教育局長 權榮燦

文化觀光局長 金光市

世宗文化會館長 柳千秀

서울市立大學校 企劃研究室長 崔良秀

.....
(書面答辯)

(뒤에 실음)

.....